

상황유형과 부사의 상적 의미 표시 기능*

홍 윤 기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bstract>

Hong, Yun-Ki. 2003. **On the Situation Type and Representing Function of Aspectual Meaning of Adverb.** *Korean Semantics, 13.* This study is aim to explicit what is a function of aspectual adverb related to aspectual meaning in a sentence as well as relevance between those.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aspectual meaning in a sentence is composed by compositional relation between lots of aspectual constituents. In conclusion, aspectual adverb in Korean do not just add aspectual meaning to the verb phrase, but represent aspectual meaning of a sentence through modifying each level what verb phrase have. Moreover, aspectual adverb have a same function as aspectual auxiliary verb at the point of view to represent aspectual meaning. Furthermore, representing function of aspectual meaning of adverb which hav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verb phrase is definitely explained by establishing situation types.

핵심어 : 상 부사, 상황유형, 상적 의미, 상적 의미 표시 기능

1. 머리말

이 글은 국어의 상 부사¹⁾가 문장에 내재된 상황유형의 특정 단계를 수식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연구과제번호:KRF-2002-074-AM1021)를 지원받았음.

1) '상 부사'란 상황유형에 내재된 상적 의미 중 특정한 상적 의미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문장의 상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의 상적 의미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이고자 한다.

상 부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시간 부사를 논의하면서 상과 관련된 특정 부사들을 분류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 부사는 세밀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시간 부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분류의 한 면을 채우는 정도였다. 그리고 상 부사의 특징적 양상으로 지적된 예들도 대체로 상 부사가 서술어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를 변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상 부사에 대해 기존의 논의는 상 부사의 기능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상 부사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기 위해 상 부사가 문장의 상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것이다. 상 부사가 문장의 상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문장의 상적 의미에 상적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각각의 상적 요소들이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²⁾

이 글에서는 문장의 상적 의미는 여러 상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통합적 관계에 따라 실현된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상 부사가 상적 의미에 기여하는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그 기능적 특성을 논의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 부사가 동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중시하되, 그 수식의 대상을 동사구가 나타내는 상황유형으로 보려고 한다. 상황유형이란 해당 동사구가 어떤 상황적 속성을 취하는지를 나타내는 의미 범주에 해당된다. 상 부사가 동사구에 내재된 상황유형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은 상 부사가 ‘지속, 순간, 반복’ 등의 상적 의미를 서술어에 더한다는 설명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시간 부사로 구분한 예들 중, 상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을 지칭한다. 이 글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부사가 문장의 상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능을 두드러지게 가지기 때문이며, 국어의 문법 체계에 ‘상 부사’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 홍윤기(2002)에서는 상적 요소들을 ‘상적 의미 구성 기능, 상적 의미 표시 기능, 상적 의미 연결 기능’을 하는 것들로 구분하고, 국어 문장의 상적 의미가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상적 요소들의 통합적인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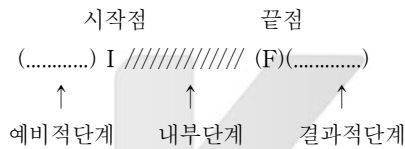
다. 서술어의 의미에 새로운 시간적 개념이 추가되어 서술어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과 상황유형의 특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상 부사가 적절한 시간적 개념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 부사가 상황유형의 특정 단계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은 상 부사의 수식 대상과 그 기능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또다른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상황유형을 제시하고, 상 부사가 개별 상황유형에 해당하는 동사구들을 수식하는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상적 의미 표시 기능이라는 상 부사의 기능적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상 보조용언과의 결합 관계도 고려할 것이다.³⁾

2. 상황유형의 추상적 도식과 상황유형의 설정

상황유형을 설정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상황이 가지는 추상적 도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⁴⁾

(1) 상황의 추상적 도식



이론적으로 상황은 시작점, 끝점, 예비적단계, 내부단계, 결과적단계를 모

- 3) 상 보조용언을 논의하는 것은 상 보조용언이 문장의 상적 의미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능을 가지는 두 요소간의 상호 결합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상 부사의 기능이 좀더 명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4) '상황의 추상적 도식'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별 상황유형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상황은 사건이나 상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우연적인 상황 요소들이 많지만, 이 도식은 가장 현저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두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명시적인 단계들이 그 자체로 상황유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유형을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의 각 지점이나 단계를 여러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고, 각 지점이나 단계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가. 시작점의 존재 / 시작점의 부재
 - 나. 끝점의 존재 / 끝점의 부재
 - 다. 예비적단계의 존재 / 예비적단계의 부재
 - 르. 내부단계의 존재 / 내부단계의 부재
 - 미. 결과적단계의 존재 / 결과적단계의 부재

(2)은 양상들은 다시 세분될 수 있다. 그런데, 각 지점이나 단계의 부재는 더 이상의 하위 분류가 곤란하다.⁵⁾ 각 지점이나 단계의 부재의 양상을 세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부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재의 양상’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점이나 단계의 ‘부재의 양상’에서 상황유형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끝점의 부재’, ‘결과적단계의 부재’이다.⁶⁾

한편, ‘존재의 양상’에서 상황유형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끝점의 존재’와 관련된 세부적 양상 중 ‘끝점이 필수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둘째, ‘내부단계의 존재’에 대한 세부적 양상 중 ‘지속되는 내부단계인가, 순간적인 내부단계인가’와 ‘변하는 내부단계인가, 변하지 않는 내부단계인가’이다. 셋째, ‘결과적단계의 존재’에 대한 세부적 양상 중 ‘결과적단계의 지속’이다.

5) ‘부재’의 양상을 더 자세히 나누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한 언어적 표현은 동사가 특정한 연결어미를 취할 경우나 가능한 것이지 동사나 동사구 자체를 통해서 그 복잡한 양상을 드러낼 수는 없다.

6) ‘시작점의 부재’는 모든 상황이 본질적으로 ‘시작점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비적 단계의 부재’는 상황의 시작점 이전을 드러내기 위한 적절한 언어적 표현이 동사구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각 지점이나 단계의 ‘존재’와 ‘부재’의 세부적 양상을 통해 추출한 ‘상황유형 설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3) ㄱ. 끝점의 존재 : I.....F⁷⁾
 a. 필수적인 끝점 : I.....F_{Nat}
 b. 자의적인 끝점 : I.....F_{Arb}⁸⁾
 ㄴ. 끝점의 부재 : I.....(∞)⁹⁾
- (4) ㄱ. 내부단계의 존재
 a. 지속적인 내부단계 : I.....F/(F)=(∞)¹⁰⁾
 b. 순간적인 내부단계 : I · F
 c. 동질적인 내부단계 : I·····(F)=(∞)¹¹⁾
 d. 비동질적인 내부단계 : I...·F
- (5) ㄱ. 결과적단계의 존재 : I.....F.....
(R)
 ㄴ. 결과적단계의 부재 : I.....F

모든 상황은 반드시 그 시작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작점과 끝점은 차이가 있다(3ㄱ). 끝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3ㄱ, ㄴ). 끝점은 다시 자연

7) ‘F’는 끝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끝점의 존재’에 대해 시작점 ‘I’를 포함해서 도식으로 표현한 것은 시작점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8) ‘Nat’는 ‘Natural end point’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다. ‘Arb’는 ‘Arbitrary end point’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다.
 9) ‘∞’는 무한히 지속되는 것을 표시한다. ‘(∞)’는 무한히 지속될 수도 있음을 표시한다.
 10) (4ㄱa)에서,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는 내부단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부단계가 지속적이거나 순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표적이고, 내부단계가 동질적이거나 비동질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무표적이다. 그리고 ‘(F)’는 자의적인 끝점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음을 표시한다. 자의적인 끝점을 가지지 않을 경우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값을 가진다.
 11) 내부단계의 동질성은 ‘I---(F)’로 표시할 수도 있다. (4ㄱc)에서 ‘· · ·’로 표시한 것이 내부단계에 서로 구분되는 하위 국면들이 있음을 가정한 것이고, 그것들 간의 동질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로 표시하는 것은 그러한 하위 국면들이 없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적으로(natural) 도달하는 끝점(도달점)(3ㄱa)과 자의적으로(arbitrary) 끝내는 끝점(종결점)(3ㄱb)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두 끝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연적인 끝점은 어떤 한 상황이 반드시 완결되어야만 상황이 온전히 전달되는 경우의 끝점을 의미하는 반면, 자의적인 끝점은 어떤 한 상황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 의해 종결될 수도 있고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단계는 선택의 조건이 있는데, 존재와 부재의 양상을 보면 끝점(3ㄱ,ㄴ)과 결과적단계(5ㄱ,ㄴ)는 존재와 부재에 따라 대립적 값이 된다. 이에 반해 내부단계(4)는 존재와 부재의 양상에 따라 대립적 값을 가지지 않는데, 모든 상황이 내부단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내부단계는 존재에 대한 세부적인 양상에서 대립적 값을 가질 수 있다. 지속적인 내부단계와 순간적인 내부단계에 따라서(4ㄱa,b), 동질적인 내부단계와 비동질적인 내부단계에 따라서(4ㄱc,d) 대립적 값을 가진다.

내부단계는 다른 단계에 비해 좀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내부단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있는 경우(4ㄱa)와 특정한 지점으로서 한 단계만이 있는 경우가 있다(4ㄱb). 그리고 내부단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각 국면을 가지는 경우(4ㄱa)는 그 내부단계의 하위 국면이 동질적인 경우(4ㄱc)와 동질적이지 않은 경우로(4ㄱd) 나뉜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식을 보면, 동질적인 경우는 끝점이 자의적으로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을 수 있으며(4ㄱc의 (F)), 선택되지 않을 경우, 무한히 지속될 수 있다(4ㄱc의 (∞)). 동질적이지 않은 경우는 끝점이 필수적이다(4ㄱd의 F).

이제 상황의 추상적인 도식과 그 구성 단계들의 관계 및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개별 상황유형의 설정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보자. (3)~(5)의 도식에서 정리한 기준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6) ㄱ. 끝점의 존재
- ㄴ. 끝점의 필수성
- ㄷ. 내부단계의 연속적 단계성¹²⁾

12) '내부단계의 연속적 단계성'은 '지속적인 내부단계'를 고쳐 쓴 개념이다.

- ㄹ. 내부단계의 동질성
- ㅁ. 결과적단계의 존재

(6)과 같은 기준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존재 여부는 특정 상황유형의 설정 근거가 될 가능성이 된다.

(6ㄴ)의 끝점의 필수성 유무를 (6ㄱ)의 끝점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보면, 끝점의 존재 여부는 상황의 본질적 특성에 속하는 것이고, 끝점이 있다는 것은 끝점이 필수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자의적인 끝점은 끝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화자가 끝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6ㄴ)의 끝점의 필수성 여부는 끝점의 존재를 전제한다.

(6ㄷ)의 내부단계의 연속적 단계성 여부는 내부단계가 특정한 내부적 시간 구조에서 일정한 정도의 시간 폭을 가지는 과정이나 아니냐와 관계되는 문제로써 상황의 내부적 과정에 대한 것이므로 대별되는 값으로 상황유형의 설정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6ㄹ)의 내부단계의 동질성 여부는 (6ㄷ)의 내부단계의 연속적 단계성 여부와 관계가 있다. 내부단계의 연속적 단계성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단계의 동질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특정한 한 점만을 가지는 내부단계에서는 그 하위 국면의 동질성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단계의 동질성은 내부의 각 하위 국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행하는 국면과 후행하는 국면이 동질적인가의 여부를 나타내어 상황유형 설정의 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6ㅁ)의 결과적단계의 존재 여부는 상황 자체의 내부단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 존재 여부가 끝점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비적단계와 시작점의 관련성보다 결과적단계와 끝점의 관련성이 훨씬 긴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단계의 존재 여부는 끝점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 상황유형의 설정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의 추상적 도식’을 바탕으로 상황유형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몇몇 기준을 검토한 결과, ‘끝점의 존재, 끝점의 필수성, 내부단계의 연속적 단계성, 내부 단계의 동질성, 끝점을 전제한 결과적단계의 존재’가 개별 상황유형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기준의 조합은 여

러 가지 상황유형을 설정할 가능성을 가지는데, 이론상으로는 상당한 양의 상황유형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미 범주로서의 상황유형 설정은 기준들간의 포함 관계를 고려하면 다섯 가지의 상황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해당 상황유형의 도식, 내부단계의 양상, 상적 특성, 대응하는 동사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³⁾

(7) 상태상황유형¹⁴⁾

ㄱ. I ----- (F)

ㄴ. [+동질성](>[-과정성]), [-한계성]

ㄷ. $t_1(s_1)$ —

ㄹ. 날씨가 따뜻하다, 마음이 슬프다, 산이 높다, 지구가 둥글다, 회주는 대학생이다, 산소의 원소 기호는 O₂이다.

(8) 동작상황유형

ㄱ. I · · · · · (F)

ㄴ. [+동질성], [+과정성], [-한계성]¹⁵⁾

ㄷ. ' $t_1(s_1, s_2, \dots, s_{n-1}, s_n), t_2(s_1, s_2, \dots, s_{n-1}, s_n), \dots, t_{n-1}(s_1, s_2, \dots, s_{n-1}, s_n), t_n(s_1, s_2, \dots, s_{n-1}, s_n), \dots$ '¹⁶⁾

ㄹ. 아이가 자다, 그녀가 웃다, 그가 생각하다, 그가 노래를 부르다, 그가 공원에서 걷다, 그가 종로 쪽으로 가다

13) 동작, 완성, 성취 상황유형의 경우는 내부단계에 대한 도식을 추가하였다.
 14) 상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것이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태 상황의 지속은 특별한 외부의 힘이 필요치 않다. 상태상황유형의 [+동질성]은 상황의 내부단계에서 구분되는 하위 국면들을 가지지 않으며, 상황의 임의의 두 지점을 비교해도 그 상황의 성격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동작상황유형이 [+과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동작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일정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끝점을 향한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동작상황유형의 내부단계는 하위 국면들로 구분되고, 그 하위 국면들은 시간적 확장에 따라 $t_1, t_2, \dots, t_{n-1}, t_n$ 의 양상을 가진다(여기서 t_i 은 과정의 시작점을 나타내고, t_n 은 자의적인 종결점을 나타낸다). 이때 과정 전체의 시간적 확장은 공간적 확장을 가지지 못하지만, 하위 국면들의 개별적 행위는 시간적 확장에 따른 공간적 확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각 하위 시구간 단계는 그 내부에 공간적 확장 ' $s_1, s_2, \dots, s_{n-1}, s_n$ '를 가질 수 있다.

(9) 완성상황유형

ㄱ. I... F
(R)

- ㄴ. [-동질성](>[-과정성]), + [+한계성] + ([+결과성])
- ㄷ. $t_1(+s_1), t_2(+s_1+s_2), \dots, t_{n-1}((s_1+s_2+\dots)+s_{n-1}), t_n(((s_1+s_2+\dots)+s_{n-1})+s_n)$ ¹⁷⁾
- ㄹ. 배가 가라앉다, 빨래가 마르다, 얼음이 얼다, 눈이 녹다, 아이를 업다, 줄을 매다, 옷을 입다, 학교에 가다

(10) 성취상황유형¹⁸⁾

ㄱ. . . . I
(P) F (R)

- ㄴ. [-과정성], [+한계성], ([+결과성])
- ㄷ. ((T(t₁=t_n)), (S(s₁=s_n)))
- ㄹ. 기차가 도착하다. 때가 옷에 묻다, 그가 시험에 붙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다, 그가 돈을 손에 쥐다.

(11) 순간상황유형¹⁹⁾

ㄱ. I
 F
 ㄴ. [-과정성], [+한계성]
 ㄷ. $t_1(s_1), t_2(s_2), \dots, t_{n-1}(s_{n-1}), t_n(s_n), t_{n+1}(s_{n+1}), \dots$ ²⁰⁾

17) 완성상황유형의 내부단계가 동작상황유형의 내부단계들과 다른 점은 그 내부단계에서 개별적인 하위 국면들이 도달점을 향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완성상황유형은 도달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과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부단계의 특징은 [-동질성]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18) 성취상황유형은 상태의 변화를 가지는 순간적인 사건을 포함한다. 순간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동시적인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면서 일정한 폭의 내부단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태의 변화를 가지는 것은 단일 사건으로서 자연적인 끝점, 도달점이 있는 것이다.

19) 순간상황유형은 순간적인 사건을 포함한다. 순간적인 과정이 존재하고, 자연적인 도달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상태의 변화를 내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적 과정'도 가지지 않고 '결과적단계'도 가지지 않는 가장 간단한 상황유형이다.

20) 이 내부단계는 순간상황유형이 다중 사건의 반복적인 발생을 가지는 경우로서, 시간적

- 르. 가슴이 철렁하다, 바닷물이 출렁이다, 번개가 번쩍하다, 눈을 깜박거리다, 날개를 퍼덕이다, 그가 기침을 하다

3. 상 부사의 수식 기능과 상황유형의 관계

이 장에서는 상 부사의 수식 기능과 상황유형의 각 단계간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상 부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통해서 상 부사 설정의 필요성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기존의 상 부사에 대한 연구는 부사의 전체적인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상과 관련된 부사들을 체계의 일부로 설정하는 논의들이 있는가 하면²¹⁾, 특정한 몇몇 부사들에 한정하여, 상적 의미와의 관련성을 논의한 경우²²⁾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논의는 상과 관련된 부사를 다른 부사들로부터 분류해 내고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상 부사의 수식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상 부사 목록을 이용하여 논의를 진행하되, 상 부사의 수식적 기능을 논의함으로써 해당 부사들이 상 부사로 설정되어야함을 밝히고, 상 부사의 하위 분류를 제시할 것이다.

상적 정보와 관련을 가지면서, 상황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수식하는 부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²³⁾

확장에 따른 공간적 확장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끝점을 가지는 하위 국면들이 무한히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중적인 반복이 발생할 경우, 이 전체를 하나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상황은 자연적인 끝점, 즉 도달점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는 자의적인 끝점을 설정할 수 있는 동작상황유형과는 다르다.

- 21) 손남익(1995 : 69)에서는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와 순간, 지속 등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능적 특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임유중(1999 : 87)에서는 시제/상 호응 부사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상 부사를 논의하고 있다. '지금, 이제, 가끔, 이미, 벌써, 요즈음, 금방, 자주' 등의 부사가 시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상 체계와 더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 22) 홍종선(1991 : 234)에서는 '완료, 진행' 등의 상적 정보가 부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23) 시제와 관련된 - 갓, 아까, 방금, 그간, 어제, 최근, 이제, 지금, 금일, 요즈음, 이따가, 장

- (12) ㄱ.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 : 밤새, 온종일, 잠깐, 오래, 한참, 영원히, 계속, 줄곧, 내내, 점점, 늘, 당분간, 두고두고, 밤낮, 시종, 연일, 노상, 마냥
- ㄴ.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 : 다시, 또, 잇달아, 연이어, 거듭, 항상, 날마다, 자주, 빈번히, 가끔, 때때로, 종종, 간혹, 이따금, 간간이
- ㄷ. 순간을 나타내는 부사 : 순간, 문득, 갑자기, 돌연, 별안간, 언뜻, 곧바로, 냉큼, 느닷없이, 대뜸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은 상 부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 (13) 먼저, 우선, 처음, 결국, 이윽고, 일찍, 이미, 벌써, 마침, 아직, 천천히

홍중선(1991:234)에서는 ‘돌이는 이미 앉아 있다’와 ‘돌이는 아직 앉아 있다’와 같은 예들이 가지는 완료상, 진행상의 상적 정보가 부사에 더 의존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적 정보는 부사 ‘이미, 아직’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유형이 지속될 수 있는 결과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 보조용언 ‘-어 있다’에 의해 표시된 것이다. 부사의 수식이 없어도 상황은 완결되어 있고, 결과 상태는 지속되는 것이다. 이는 완성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구의 특성이다.

- (14) ㄱ. 빨래가 벌써 말랐다.
- ㄴ. 빨래가 벌써 말라 버렸다.
- ㄷ. 빨래가 벌써 말라 있었다.

(14)에서 부사 ‘벌써’는 빨래가 마른 끝점을 수식한다거나 말라 있는 상태인 결과적 단계를 수식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벌써’는 빨래가 자연적으로 마르는 도달점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다. ‘벌써’는 상황유형의 각 단계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

차, 조만간 - 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 부사들은 상황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한 시간적 위치만을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의 관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문에 상 부사로 다룰 대상이 아니다.

(13)의 예들이 상 부사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에 비해, (12)의 부사들은 동사구에 대응하는 상황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수식의 양상을 보인다.

- (15) ㄱ. 채은이는 계속 마음이 아팠다.
- ㄴ. 채은이는 내내 노래를 불렀다.
- ㄷ. 채은이는 한참 아이를 업었다.
- ㄹ. 채은이는 줄곧 물건을 손에 쥐었다.
- ㅁ. 채은이는 밤새 눈을 깜박였다.

상황의 지속을 나타내는 상 부사들이 결합한 위의 예들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15ㄱ)은 상태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구인데, ‘계속’이 수식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상태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상태상황유형의 [+동질성], [-한계성]의 상적 특성에 근거한다. (15ㄴ)은 동작상황유형의 예로서, ‘내내’가 수식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나 동작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은 개별 동작의 반복적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서 개별 행위의 끝은 있으나 전체적인 노래 부르는 행위는 지속되는 양상으로서 동작상황유형의 [+동질성], [+과정성], [-한계성]의 상적 특성에 근거한다. 내부단계에 대한 수식만이 가능할 뿐, 상황의 종결은 자의적인 종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비해 완성상황유형은 좀 다른 특성을 보인다. (15ㄷ)의 완성상황유형을 보면, 상 부사 ‘한참’이 수식하는 양상은 아이를 업는 행위 자체가 오래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업은 동작이 완결된 이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완성상황유형의 [-동질성]²⁴⁾[+한계성], [+결과성]의 상적 특성 때문이다. 내부단계에 대한 수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황의 끝점 및 결과적단계에 대한 수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성취상황유형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이는 내부 단계의 순간적 양상이다. (15ㄹ)에서 ‘줄곧’이 수식하는 상황은 물건을 손에 쥐

24) 여기서 [-동질성]은 [+과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는 순간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손에 쥔 동작이 완결된 이후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과정성], [+한계성], [+결과성]의 상적 특성 때문이다. ‘줄곧’과 같은 지속의 의미를 가진 부사뿐만 아니라 순간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도 내부단계에 대한 수식이 가능하며, 지속의 부사는 끝점 및 결과적단계에 대한 수식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15)은 순간상황유형의 예인데, 부사 ‘밤새’가 수식하는 상황은 눈을 깜박이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서 [-과정성], [+한계성]의 상적 특성 때문이다.

부사가 수식하는 상황의 내용이 동사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상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윤기(2002 : 204)에서는 상 보조용언이 상황유형에 따라 다른 상적 의미를 표시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아래 (16)에서 상 보조용언이 표시하는 단계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된 것은 완성상황유형이다. 이미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완성상황유형은 상황유형의 모든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상황유형의 예를 통해 드러나는 상 보조용언의 기능을 무표적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황유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유효적인 기능으로 처리하였다.

(16) 상황유형에 따른 상 보조용언의 수식 대상²⁵⁾

상 보조용언 상황유형	-어 있다)- -고 있다)-	-고 있다)-	-어 개(다)-	-어 버리(다)-	-고 말(다)-	-어 내(다)-	-어 두(다)-	-어 쌓(다)-
상태상황유형			*잠재적과정 지속					
동작상황유형		내부단계 지속	내부단계 지속	끝점 완결	끝점 완결	끝점 완결	*끝점 완결	내부단계 지속
완성상황유형	결과적단계 결과상태지속	내부단계 지속	내부단계 지속	끝점 완결	끝점 완결	끝점 완결	결과적단계 결과상태지속	내부단계 반복/지속
성취상황유형	결과적단계 결과상태지속	*예비적단계 지속	*예비적단계 지속	끝점 완결	끝점 완결	끝점 완결	결과적단계 결과상태지속	*끝점 완결
순간상황유형		끝점 완결/반복	*예비적단계 지속	끝점 완결	끝점 완결	끝점 완결		*끝점 완결/반복

25) (16)의 표에서 각 상황유형의 윗줄은 상황유형의 각 단계를, 아랫줄의 이탤릭체는 상적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 표시가 된 단계는 완성상황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유효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상 보조용언의 이러한 기능은 (15)에서 본 부사의 수식 기능과 비슷한 것으로서 상 보조용언과 상 부사가 상적 의미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17) ㄱ. 채은이는 계속 마음이 아팠다.²⁶⁾
ㄴ. 채은이는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ㄷ. 채은이는 한참 아이를 업고 있었다.
ㄹ. 채은이는 줄곧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다.
ㅁ. 채은이는 밤새 눈을 깜박이고 있었다.

(17)에서 상 보조용언이 표시하는 상적 의미 역시 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인다. (17ㄴ)은 동작상황유형의 내부단계가 변화없이 지속되는 것을, (17ㄷ)은 완성상황유형의 내부단계가 변화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나 내부단계의 완결 이후 결과적단계가 지속되는 것을, (17ㄹ)은 성취상황유형의 내부 단계가 짧은 순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내부단계의 완결 이후 결과적단계가 지속되는 것을, (17ㅁ)은 순간상황유형의 순간적인 내부단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상 보조용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유형에 따라서 다른 상적 의미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이제 각 상황유형에 해당하는 예들을 가지고 시간 부사의 수식 기능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먼저 완성상황유형의 예들을 논의할 것인데, 상 보조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 부사의 수식 기능 역시 완성상황유형의 경우를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속, 반복’을 나타내는 상 부사는 완성상황유형의 동사구에 쓰여서 상황유형의 여러 단계를 수식한다.

- (18) ㄱ. 어머니는 온종일 김치를 독에 넣으셨다.
ㄴ. 어머니는 온종일 김치를 독에 넣고 계셨다.
ㄷ. 어머니는 온종일 김치를 독에 넣어 두셨다/놓으셨다.

26) ‘마음이 아프다’와 같은 상태상황유형의 예들은 상 보조용언에 의한 상적 의미 표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18ㄱ)의 상부사 ‘온종일’은 (18ㄴ, 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단계를 수식하거나 결과적단계를 수식할 수 있다. 결과적단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끝점의 완결을 전제하는데, ‘어머니는 김치를 독에 넣어 버렸다’와 같이 끝점을 표시하는 상 보조용언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 (18ㄱ)이 끝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단, 상 부사 ‘온종일’이 끝점을 표시하는 상 부사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없는 것은 끝점이 완결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18ㄱ)에서 (18ㄷ)의 상황을 포착하는 것보다 (18ㄱ)에서 (18ㄴ)의 상황을 포착하는 것이 더 쉽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인다.

- (19) ㄱ. 그는 밤새 자기 방의 창문을 닫았다.
ㄴ. 그는 밤새 자기 방의 창문을 닫고 있었다.
ㄷ. 그는 밤새 자기 방의 창문을 닫고 있었다/닫아 놓았다.²⁷⁾

(19ㄴ, ㄷ)을 볼 때, (19ㄱ)이 닫는 행위가 밤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닫은 이후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즉 ‘밤새’가 결과적단계를 수식하는 것이 더 전형적인 듯하다.

(18)과 (19)의 예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동사구에 따라서 상 부사가 지시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식 대상의 차이는 상 보조용언이 표시하는 상적 의미에 따라 보다 분명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상 부사들이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면, 순간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 (20) ㄱ. 그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다.
ㄴ. 그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버렸다.
ㄷ. 그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고 있었다.

- (21) ㄱ. 그는 잠깐 바닥에 엎드렸다.

27) ‘-고 있다’가 (19ㄴ)에서는 내부단계, (19ㄷ)에서는 결과적단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 ㄴ. *그는 잠깐 바닥에 엎드려 버렸다.
- ㄷ. 그는 잠깐 바닥에 엎드리고 있었다.

(20)은 ‘갑자기’와 같은 상 부사가 상황의 끝점이나 내부단계의 특정 지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수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ㄴ)은 상 부사가 엎드리는 상황의 완결점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하는 데 비해, (21ㄷ)은 상황의 결과적단계보다는 내부단계의 특정 지점을 표시한다. 이러한 수식의 양상은 지속의 부사가 쓰인 (21)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21ㄴ)에서 보듯이 ‘잠깐’은 상황의 끝점을 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1ㄷ)에서처럼 결과적단계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완성상황유형의 예들을 통해서 상 부사가 상황의 각 단계를 수식하여 다양한 상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지속의 의미를 가진 상 부사는 주로 상황의 내부단계와 결과적단계를 수식하며, 순간의 의미를 가진 상 부사는 주로 상황의 내부단계와 끝점을 수식한다. 그런데 상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은 상 보조용언이 결합된 경우에 좀더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것은 상 부사가 문장의 상적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 부사의 상적 의미 표시 기능이 상 보조용언의 그것보다는 부차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다른 상황유형의 예들을 살펴보자.

- (22) ㄱ. 산소의 원소 기호는 O_2 이다.
- ㄴ. 채은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다.
- ㄷ. 벌써 날씨가 따뜻하다.

(22)의 예들은 상태상황유형에 속하는 예들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들은 (12)에서 제시한 상 부사들과의 공기가 대체로 불가능하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들과는 공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 관계가 가능한 것은 상태 상황유형의 특정 단계를 상 부사가 수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정한 상태 자체가 예상한 것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나 빨리 이루어진 것을 나타낼 뿐이지 상황 내부의 양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상태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구의 예에서 상 부사의 상적 의미 표시 기능이 두드러지지 않는 현상은 상 보조용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동작 상황유형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상황유형 자체에 여러 단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속, 반복, 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들도 동작상황유형의 예들과 자연스럽게 공기하여 내부단계의 지속을 표시할 수 있다.

(23) ㄱ. 채은이가 밤새 온다.

ㄴ. 채은이가 또 노래를 부른다.

ㄷ. 채은이가 갑자기 종로 쪽으로 걸었다.

(24) ㄱ. 채은이가 밤새 울고 있다.

ㄴ. 채은이가 또 노래를 부르고 있다.

ㄷ. *채은이가 갑자기 종로 쪽으로 걷고 있었다.

(23ㄱ)에서, 상 부사 ‘밤새’는 동작상황유형의 내부단계를 수식하는데, (24ㄱ)의 상 보조용언이 결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3ㄴ)에서 상 부사 ‘또’는 내부단계를 수식하고 있는데, 반복적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3ㄱ)과 (23ㄴ)에서 상 부사 ‘밤새’와 ‘또’는 내부단계를 수식하는 기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적 양상도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동작상황유형의 내부단계가 ‘ $t_1(s_1, s_2, \dots, s_{n-1}, s_n), t_2(s_1, s_2, \dots, s_{n-1}, s_n), \dots, t_{n-1}(s_1, s_2, \dots, s_{n-1}, s_n), t_n(s_1, s_2, \dots, s_{n-1}, s_n), \dots$ ’와 같은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런데, (23ㄷ)의 ‘갑자기’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진다. (24ㄷ)에서 ‘갑자기’가 수식하는 것이 내부단계의 지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갑자기’가 수식하는 상황은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지속되는 내부단계의 특정 지점에서 다른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거나, 새로운 상황의 내부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다. ‘채은이가 갑자기 종로 쪽으로 걸으려고 했다’에서처럼, 상황의 시작점과 가까운 예비적단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성취 상황유형은 완성상황유형과 거의 유사한 상황유형의 특성을 가지지만 내부단계가 짧은 것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내부단계의 반복이나 지속을

나타내는 상 부사와의 공기는 완성상황유형과는 다른 상황을 수식할 가능성이 크다.

- (25) ㄱ. 기차가 이미 도착했다.
 - ㄴ. 기차가 이미 도착해 버렸다.
 - ㄷ. 기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 (26) ㄱ. 먼지가 옷에 계속 묻었다,
 - ㄴ. 먼지가 옷에 계속 묻어 버렸다.
 - ㄷ. 먼지가 옷에 계속 묻어 있었다.

- (27) ㄱ. 그녀는 돈을 한동안 손에 쥐었다.
 - ㄴ. *그녀는 돈을 한동안 손에 쥐어 버렸다.
 - ㄷ. 그녀는 돈을 한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

(25)의 경우, 상 부사 ‘이미’가 끝점 이후의 결과적 단계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6)~(27)에서도 확인된다. 완성상황유형의 예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26ㄴ)에서 ‘계속’이 수식하는 상황은 내부단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성취상황유형의 내부단계가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27ㄴ)의 ‘한동안’과 같은 지속의 상 부사가 적절치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순간상황유형의 예들을 살펴보자. 순간상황유형의 예들은 지속되는 내부단계를 가지지 못하고, 결과적 단계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반복’의 시간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이 짧은 내부 단계의 반복일 가능성이 크다.

- (28) ㄱ. 하루 종일 바닷물이 출렁인다.
 - ㄴ. 하루 종일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다.
 - ㄷ. 그는 계속 눈을 깜박거렸다.
 - ㄹ. 그는 계속 눈을 깜박거리고 있었다.

(28)의 예들에서 ‘하루 종일’이란 지속의 시간 부사와 ‘계속’의 반복의 시간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이 완성, 성취 상황유형과는 달리 짧은 내부 단계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상 부사의 수식 대상이 상황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 부사가 특정 단계를 수식함으로써 상적 의미 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장에 실현된 상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황유형의 설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 부사의 수식 기능과 상적 의미 표시 기능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맺음말

논의한 내용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밝힘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이 글은 상 부사가 문장의 상적 의미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상 부사의 기능과 상황유형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 글은 문장의 상적 의미가 여러 가지 상적 요소의 통합적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고 표시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국어의 상 부사는 단순히 동사구에 상적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가 가지고 있는 상황유형의 각 단계를 수식함으로써 문장의 상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 부사는 상적 의미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상 보조용언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사구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상 부사의 수식 기능은 상황유형을 설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국어의 상 부사가 문장의 상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에 논의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상황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인식 및 사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것이 언어화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만을 논의한 것이다. 국어 문장의 상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좀더 체계적이고 설명적인 것이 되려면 모국어 화자가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의 문제 및 시간과 상황에 대한 사유의 틀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 형태·통어론 -, 도서출판 박이정.
- 김진수(1985), “시간부사 ‘벌써’ ‘이미’와 ‘아직’의 상과 통사 제약,” 한글 189. 한글학회.
- 남기심(1978), “국어 문법의 상(相)과 시제(時制),” 한국학보 12.
- 서정수(1996), 국어문법(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이남순(1981),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 이종철(1964),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의 연구,” 국어연구 12.
- 이지양(1982), “현대국어의 시상형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51.
- 임유중(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 정희자(1994), “시제와 상의 화용상의 선택조건,” 애산학보 15. 애산학회.
- 홍윤기(2002), 국어 문장의 상적 의미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Brinton, L. J.(1988), *The development of English aspectual systems: Aspectualizers and Post-verbal partic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lota S. Smith(1983), A theory of aspectual choice, *Language* 59-3.
- Carlota S. Smith(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 Osten(1985), *Tense and Aspect System*, Blackwell.
- Tenny, C.(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Ph.D. dissertation. MIT
- Tenny, C.(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enny, C. & Pustejovsky, J.(2000),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Publications.
- Vendler, Z.(1967), *Verbs &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 Guido Vanden Wyngaerd(2001), MEASURING EVENTS, *Language* 7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30-701
전화번호 : 02-961-0223
전자우편 : yunkihong@khu.ac.kr

K C I